



보도자료

맥쿼리인프라펀드, 40MW 하이퍼스케일급 하남데이터센터 매매 계약 체결

● 맥쿼리인프라의 첫번째 데이터센터 투자로 디지털 부문으로 포트폴리오 다각화

(2024년 7월 30일, 서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자회사(이하 “맥쿼리인프라”)는 오늘 그린디지털인프라(주)를 통해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데이터센터 (“하남 IDC”)를 100% 취득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맥쿼리인프라는 매도인¹으로부터 총 수전용량 40MW(목표 IT 부하 25.44MW) 규모의 하남 IDC 를 7,340억 원에 인수한다. 잔여 구축공사 비용 및 각종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본 건 투자와 관련된 예상 투자비는 총 9,180억 원 가량이고, 이를 위한 재원으로 맥쿼리인프라에서 약 4,230억 원(자본금 230억 원 및 후순위대출 4,000억 원 가량)을, 외부 대주단으로부터 선순위 대출로 나머지를 조달할 예정이다.

하남 IDC 는 경기도 하남시 내 6,637.5 m²(2,007.8 평) 부지에 설립된 총 12층, 연면적 41,919.45 m²(1만 2,680.6 평)의 하이퍼스케일급 데이터센터로, LG CNS 는 데이터센터 전체를 임차하고, 국내 굴지의 IT 기업, 대기업, 금융회사 등 실제 이용자들은 LG CNS 와 각 임차 공간을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자체 비용으로 IT 설비를 설치, 관리 및 운영하는 코로케이션(임대용) 데이터센터이다.

맥쿼리인프라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에 투자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인프라펀드로 2002년 설립 이후 도로, 항만, 철도 등에 투자를 집중하였으나 점차 도시가스과 같은 에너지 사업, 이번 데이터센터와 같은 디지털인프라로 그 투자영역을 확대해 오고 있다.

맥쿼리인프라를 운용하는 맥쿼리자산운용 서범식 대표는 “생성형 AI, 클라우드 서비스 등 IT 기술분야의 성장과 아웃소싱 트렌드에 따라 관련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하남 IDC 는 안정적인 통신망이 제공되고 추가적인 수전 확보가 어려운 수도권에 위치하여 관련기업들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맥쿼리인프라는 이번 하남 IDC 투자처럼 인구변화, 디지털화 등 국내 및 글로벌 시장의 변화와 성장에 맞는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투자자들에게 적절한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AI와 같은 미래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라고 말했다.

맥쿼리인프라는 국내 코스피에 2006년 상장된 인프라펀드(MKIF, 08898)로서 시가총액 약 5조 4천억원², 투자자 수는 21만 명이 넘는다. 맥쿼리인프라 지분률의 88.6%는 국내 투자자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 투자자

¹ 이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 354호의 신탁업자
² 2024년 6월 30일 기준

중 41.2%는 연기금, 보험사, 공제회, 퇴직연금 운용기관 등 기관투자자이며, 개인 투자자 지분율은 47.4%에 달한다.

맥쿼리인프라는 최근 수년간 꾸준히 신규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데, 서울의 상습 정체구간을 지하화하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자사업, 서울 왕십리 및 상계동을 연결하는 동북선도시철도, 수도권 제 2 순환 고속도로 노선의 일부인 인천-김포고속도로, 부산신항과 내륙의 효율적인 물류운송에 기여하는 부산항신항 제 2 배후도로, 도시가스 회사인 해양에너지, 서라벌도시가스, 씨엔씨티에너지 등에 투자한 바 있다. 현재 맥쿼리인프라는 하남 IDC 를 포함하여 총 20 개의 인프라 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맥쿼리자산운용그룹은 아시아지역에서 디지털 인프라 부문에 꾸준히 투자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지역 디지털 인프라 플랫폼인 버사마 디지털 인프라(Bersama Digital Infrastructure), 아시아 지역의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운영사인 에어트렁크(AirTrunk), 호주의 광섬유 및 네트워크 솔루션 제공사인 보커스(Vocus) 등에 투자해 왔다.

추가문의

박진욱 전무 (맥쿼리자산운용)

직통: (02) 3705 8516 / 휴대폰: 010 4102 0448

김선미 부문장 (한국맥쿼리 홍보담당)

직통: (02) 3705 8582 / 휴대폰: 010 7610 4020

sunmi.kim@macquarie.com

맥쿼리한국인프라투자회사 (맥쿼리인프라펀드, Macquarie Korea Infrastructure Fund, MKIF)

맥쿼리인프라펀드는 2002년 12월 국내 기관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인프라펀드를 설립하고 2006년 3월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펀드로서 국내투자자 비중이 88.6%, 투자자 수는 21만여명이며 시가총액은 5.4조원으로 국내에서 대표적인 상장인프라펀드로 발전하였다.

맥쿼리인프라펀드는 일반펀드와는 달리 별도의 펀드 만기를 두지 않은 상장펀드로 장기투자를 목표로 하며 실제 2002년 펀드 설립이후 투자한 대부분의 프로젝트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투자자 역시 이러한 특성을 잘 이해하는 국내외 기관투자자 및 장기 보유하면서 연금 성격의 배당수익을 얻고자 하는 개인투자자로 구성되어 있다. 통상 펀드 만기가 있어 단기적인 성과를 추구하는 펀드와는 많이 다른 점이다.

맥쿼리자산운용(Macquarie Asset Management)

맥쿼리자산운용그룹은 누구에게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선도적인 글로벌 대체자산 운용사이다. 기관, 연기금, 정부 및 개인 투자자들을 대신하여 전세계에서 미화 6천 1백 1십 7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Macquarie Group Limited

인프라 및 재생 에너지, 부동산, 농업 및 천연 자산, 자산 금융, 사모사채, 주식, 채권 및 멀티 애셋 솔루션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 특화된 투자전문성을 제공하고 있다.

맥쿼리자산운용그룹은 맥쿼리그룹의 일원이다. 맥쿼리그룹은 채권, 주식 및 상품 부문에 걸쳐 고객들에게 자산운용 및 파이낸스, बैं킹, 자문, 리스크 및 자본솔루션을 제공하는 다각화된 금융그룹이다. 1969 년에 설립된 맥쿼리그룹에는 34 개 시장에서 2 만 6 백 여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호주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다(ASX:MQG).

모든 수치는 2024 년 3 월 31 일 기준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Macquarie.com](https://www.macquarie.com) 에서 볼 수 있다.